

【논 문】

##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의 의미

차성연\*

### ┃ 차 례 ┃

1. 서론
2. 식민지의 외부, 전망의 시연
3. 주권 지향의 근대성
4. 초극적 공간 지향과 근대의 초극
5. 결론

### 국문초록

한국 근대소설에 재현된 만주는 식민지의 외부이면서 조선의 연장인 ‘사건적 장소(site événementiel)’이며, 이주 조선인의 정주에의 욕망과 식민지 조선인의 근대 초극에의 열망을 시연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소설의 주체는 비주권적 존재이면서 주권을 지향하는, 비초극적 식민지인이면서 초극을 지향하는 분열된 정체성으로 인해 갱생되고자 하며 만주는 그러한 갱생의 공간, 새로운 주체성 정립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주제어: 만주, 식민지의 외부, 사건적 장소(site événementiel), 근대 초극, 갱생

www.kci.go.kr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서론

만주가 한국 근대소설의 무대로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최서해나 한설야, 김동인의 단편을 통해서였다. 이들의 소설에서 만주는 가뭄과 빈곤으로 인해 이주한 농민들이 중국인 지주에게 핍박받는 공간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그들 소설의 공간과는 확연히 다른 만주가 한국 소설의 무대로 등장한다.<sup>1)</sup> 일제는 만주를 장악하였고 만주를 통해 ‘대동아공영권’의 토대를 닦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내지와 조선에서의 인구 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다. 이와 같은 ‘만주붐’의 형성은 조선 문단에도 영향을 미쳐 만주 기행문 및 개척소설이 다수 창작되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 후반 한국 문단에 쏟아져 나온 이러한 창작물들은 일제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책문학, 즉 친일문학으로 평가받아 왔다. 큰 틀에서 친일 문학인 것에 이론을 제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러한 봉인이 세부적인 연구를 지연시켜 온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만주 공간은 특히 일시적인 ‘붐’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현대사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일제의 정책 수행 공간으로서의 만주가 아니라 문학사적인 관점에서의 만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근대문학사에서 만주는 어떠한 공간인가. 이는 근대문학의 주체가 만주를 어떠한 공간으로 인식했으며 만주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욕망은 무엇이

1) 함대훈은 이렇게 만주의 이미지가 변화한 양상을 「남북만주편답기」(『조광』1939·7, 72쪽)에서 “‘만주로 간다’/ 이 말이 만주사변 전엔 조선서 쫓겨 가는 불상한 농민들이 박아지를 깨차고 보따리를 든 초라한 모양을 연상했지만 만주 건국 이래 6년의 세월이 흐른 금일에 있어서는 만주로 간다는 말이 ‘일을 하러 가고 희망을 갖고 간다’고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서술했다.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만주는 갱생, 초극,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만주를 통해 식민지 내부에서는 꿈꿀 수 없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2. 식민지의 외부, 전망의 시연

소설은 근대적 시간의 서사로서 한 사건의 발발지점으로부터 점차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인 시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의 한 구성요소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거나 현재에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간의 전개에서 ‘미래’는 현재의 모순과 갈등이 해결되는 지점으로서 전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때론 미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재적 모순의 심각성을 무마하기도 하고 혹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세계에 출구가 없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만주’는 이러한 소설의 시간구조에서 ‘미래’가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민지 시기 만주가 식민지의 외부 공간으로 존재함으로써 ‘미래’라는 시간에 행해야 하는 전망을 만주를 통해 실현하고자 시도하였다. 일제말기에 만주 관련 소설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것은, 만주를 대륙침략의 기반으로 삼은 일제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식민지의 내부 모순이 심화되어 외부 공간을 가정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서사의 전개가 어려웠던 문학 내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최서해와 한설야의 단편들에서 등장 인물은 현재적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 만주 공간으로 탈출을 도모한다. 근대적 서사 형식에서는 현재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곧 사건의 전개이며 시간의 진행이다. 만주라는 외부적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한국 근대문학은 모순과 갈등의 해소를 손쉽게 이룰 수 있었다. 즉 시간의 점진적인 전개를 만주라는 외부 공간의 제시

로 대체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외적으로 근대소설의 형식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내적으로는 갈등의 내재적 해소를 이를 만한 성숙의 계기를 지연시키게 되었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시들은 몸에 새 힘을 얻을까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떠난 것도 굳이 아는 사실이다

—간도는 천부금탕이다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쌀도 흔할 것이다 삼림이 많으니 나무 걱정도 될 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뜨뜻이 지내자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 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서 이상촌을 건설하라! 이렇게 하면 간도의 황무지를 개척할 수 있다<sup>2)</sup>

나는 고국을 떠날 때에 울었나이다 류량의 숨은 거름을 생각하고 울었나이다. 외롭고 외로운 나를 생각하고 또 울었나이다 너르고 너른 별판에 지향엽시 튀어나올 알몸의 나를 생각하고 설은 눈물이 마를 사이 업섯나이다. 아 그러나 살면 고향이요 지나면 정이 붓나이다 나는 요사이 도리혀 만주벌이 그리워서 곳도 가도 모르는 이 바닥에 서서 새『삶』을 깃벼 하나이다. 과연 만주벌이 그림소이다(…) <sup>3)</sup>

1920년대 최서해와 한설야의 소설에서 ‘만주’는 고향에서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공간으로 존재했다. 고향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외부 공간인 만주를 향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만주는 희망의 땅으로 그려진다. 심지어 한설야의 「그릇된 동경」에서는 고향을 떠난 상태에서 오빠에게 편지를 쓰

2) 최서해, 「탈출기」(1925년) ; 1987, 『최서해전집(上)』, 문학과학지성사, 17쪽.

3) 한설야, 「그릇된 동경」(1927년) ; 김외곤 편, 1989, 『과도기(한설야 단편선집1)』, 태학사.

면서도 “만주벌이 그림다”고 한다. 작가 한설야 특유의 대륙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만주의 삶을 경험하고 난 이후는 다르다. 최서해와 한설야는 작가 스스로 만주의 삶을 체험했으며 거기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체험과 기록이 이들의 창작 방법이었으므로 만주 체험과 귀향은 그들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

창선이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더쳐왔다 제 고장이라고 그리워하였고 제 친족이라고 차자는 왓스나 생각든 바와는 아조 텃양지판이다조선 가면 아모 일이라도 해 먹으려니 했스나 막상 와보니 그「아모 일」이란 아모 데서도 차줄 수 업섯다 일하구 십허도 할 일이 업고 힘을 쓸내도 쓸 곳이 업고 고기도 잡아 먹을 수 업고 농사도 지을 수 업다대대로 전하여오든 손님은 일 맞드린 일은 이러하야 어더 만낼 수 업고 눈이 멀게서 산 송장이 될 것만 갖했다.<sup>4)</sup>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반기는 이도 없고 할 일도 없다. 고향은 변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공간에서의 근대화, 자본주의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그러한 변화가 축적되어 자본주의적 풍요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도시 일부 중산층 이상의 부류들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일본의 호황으로 인한 대자본의 침투와 더불어 실질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향은 공업화되어 “고기도 잡아먹을 수 업고 농사도 지을 수 업다.” 만주에서도 고향에서도 안주할 수 없는 삶. 진정한 ‘유민’이 된 셈이다. 만주이거나 고향이거나 현재적 삶의 출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나 그것이 허상임을 깨달았을 때 출구는 없다. 그리하여 최서해의 소설은 살인, 방화

4) 한설야, 「과도기」(1929년), 앞의 책, 140쪽.

와 같은 파국을 향해 치달아갔으며 한설야의 소설은 강한 이념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최서해나 한설야의 소설에서는 다소 막연하게 제시되긴 했지만 만주는 식민지의 외부 공간으로서 내부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전망을 시연해볼 수 있는 장소였다. 1930년대 초반 잠시 한국소설의 무대에서 희미해졌던 만주는 1937년 이후 현실 공간의 ‘만주봄’과 함께 소설의 무대로 빈번히 등장하게 된다. 1930년대 초반의 한국 소설은 만주와 같은 외부공간으로서 ‘미래’라는 시간성을 대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내부 공간의 현실에 충실하고 그 내면이나 이념과 같은 것에서 전망을 찾고자 모색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만주 공간은 한국 소설의 무대에서 잠시 뒤로 물러났던 것인데, 1935년 카프의 해체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모색이 실패로 돌아가자 만주는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의 소설에 나타난 만주는 극단적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이주 농민이 피땀 흘려 땅을 개간하고 정착해 살아가는 만주와 여행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잠시 경유하게 되는 만주가 그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만주는 같은 공간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만주 사변과 만주국 수립을 통해 일제가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1930년대의 만주는 일본 자본의 침투로 급격하게 문명화된 도시 지역과 아직까지 봉건 군벌의 휘하에 있던 농촌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거기서 살아가는 인종 또한 다양했다. 이처럼 단일화된 표상으로 재현하기 힘든,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공간이 바로 일제 말기의 만주였다.

‘만주’를 체험하고 돌아와 그 경험을 소설로 남긴 작가가 최서해와 한설

야라면 만주에 정착하여 이주민의 삶을 꺾진하게 그린 작가가 바로 안수길과 현경준이다. 물론 이들 외에 김창걸, 박영준, 신서야 등 다수의 작가들이 있으며 이들을 재만(在滿)조선인 작가라 칭한다. 이들은 말 그대로 만주에서 거주하는 작가들이다. 작가 스스로 만주에 정착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만주에 살고 있는 대다수 조선인인 이주 농민들의 삶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 농민들의 삶은 반드시 재만 작가에 의해서만 형상화된 것은 아니다.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과 같은 작품도 있으며 장혁주의 『개간』이나 일본인 작가의 작품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설들은 ‘재만(在滿)’이라는 제한을 넘어 이를 만주 이주민 소설이라는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만주 이주민 소설에는 이주민의 정주(定住) 욕망과 그로 인한 주권지향성이 나타나 있다. 이는 만주가 식민지의 외부 공간이기도 하지만 조선의 연장과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주 이주 조선인은 식민지의 외부에서 다른 민족과 접하면서 민족이나 국가가 의미하는 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민족’이 차별과 배제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들을 동등한 국민으로 만들어줄 국가의 구성을 열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이주하여 생활했다면 국가의 구성과 같은 전망을 그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주 조선인은 주로 벼농사를 생업으로 하였고, 농업의 특성상 집단적으로 모여 조선에서의 말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공동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만주에서 조선 민족이 궁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재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만주 이주민의 이러한 열망은 안수길의 『북향보』나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과 같은 작품에서 ‘조선인만의 국가’에 대한 구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제 말기에는 조선의 작가들이 만주 여행을 다녀와 기행문을 쓰거나 그

경험을 소설화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다. 이는 소재의 빈곤에 빠진 문학계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찾은 방법이기도 했고 조선총독부의 정책이기도 했다.<sup>5)</sup> 이들이 본 만주는 개척부락이거나 문명화된 도시였다. 개척부락에는 이주 농민이 살고 있었지만 잠깐의 시찰을 통해 간난신고 끝에 정착한 그 긴 시간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행문이나 개척문학은 만주 이주민 문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책문학, 친일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만주국의 영토라고 해도 모든 지역에 만주국의 영향력이 뻗어있는 것은 아니었다. 만주에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철도 부설지였다. 그 중에서도 만주국의 수도新京과 하얼빈은 상당히 문명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역을 여행하는 식민지 조선인은 그 곳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유사 일본인이 된다. 만주를 재현하고 있는 많은 작품들에 나타난 유사 제국주의자의 시선은 스스로를 제국민이라 상상하면서 제국의 힘이 만들어낸 문화를 누리고 그곳의 원주민을 ‘야만’으로 바라본다. 이는 피식민자의 착종된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에서 억눌리고 분열되었던 욕망을 식민지의 외부에서 스스로 식민자의 위치에 섬으로써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식민자의 욕망에는 유사 제국주의적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식민’에서 벗어나고 또한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보예의 욕망도 있다. 그러나 일제말기 모든 전망을 상실한 식민지 조선의 주체에게 이러한 욕망은 일본이 보여주는 세계 내에서만 은밀하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내부에서보다 식민지의 외부 공간인 만주에서 이러한 욕

5) 이처럼 소재의 빈곤에 허덕이는 조선 문학의 타개책이라는 문단의 내부적 욕망과 국책이라는 외부적 욕망이 만나는 곳에 만주라는 공간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만주문학은 개척문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다. 윤대석, 2006,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3쪽.

망의 흔적을 좀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동일적 세계 내부에서는 시스템에 틈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사건(événement)’이 발생하지 않는다.<sup>6)</sup> 만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한국 근대소설의 인물들은 만주로 탈출하거나 만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와 식민지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이주민 소설에서는 더 큰 고난과 갈등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식민지에서는 꿈꿀 수 없는 조선인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 3. 주권 지향의 근대성

한민족(韓民族)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를 구성해왔다. 이 또한 근대의 민족 개념처럼 ‘단일민족신화’를 통해 상상된 것이긴 하나 다른 민족에 비해 단일성이 우세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 국가-주권을 빼앗겼을 때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민족만의 국가를 되찾기 위해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한 세력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일제 말기로 갈수록 다른 민족이 세운 국가인 일제를 국가로 받아들이고 제

6) 바디우는 이러한 공백, 기존 상황의 가장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체가 사건에 대한 충실성을 가질 때 진리가 산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주와 같은 ‘사건적 장소’에서 기존 상황과는 다른 ‘무엇’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바디우가 말하는 사건이란 ‘하나로 셀하기’라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상황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의 작동원리가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스템의 외부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 내의 공백, 가장자리와 같은 ‘사건적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디우의 생각이다. ‘하나로 셀하기’라는 시스템을 식민주의로 치환해본다면 바디우의 ‘사건적 장소’는 탈식민적 공간이기도 하다. 만주는 바디우적인 의미에서 ‘사건적 장소’라 할 만하다. —Badiou, A., 이종영 역, 1995, 『철학을 위한 선언』, 백의, 참고.

국의 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것이 곧 ‘친일’이다.7) 물론 ‘친일’은 민족의 현실에 등을 돌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계급적인 관점에서든 제국주의에 동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 부정적인 함의가 희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인에게 한민족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제국의 신민이 되라는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는 어떤 의미에서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민족 담론을 대신할 대동아공영의 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서구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동양이 하나의 공영권으로서 그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이다. 문제는 대동아공영을 이루어야 할 중국, 조선, 기타 민족들이 저마다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 통합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그 신민이 되어 전쟁에 동원되기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다. 만주는 이렇게 쉽지 않은 다민족 협화, 대동아공영권의 중요한 실험장이자 메카였다.

20세기 초의 만주가 문제적인 것은 그 곳이 공동(空洞)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이 제국과 식민지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을 때 만주는 제국도 식민지도 아닌 공간으로서 어떠한 세력도 확고히 그 곳을 자신의 휘하에 두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모든 세력이 그 지역을 탐할 수 있었다. 러시아, 중국, 일본은 힘의 대결을 벌이면서 그 우열관계에 따라 ‘만

7)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과 더불어 일본의 정책이 바뀐다. 동양체제론 등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했고, 그것을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 이 과정에서 식민지 민족을 동원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는 내선일체론이나 국민문학론으로 제시된다. 한국 근대문학사에 가장 극단적인 민족#국가의 상황이 담긴 것. 국민이 되면 민족을 등지게 되고, 민족이 되면 국가와 정면으로 대결해야 하는, 임화의 표현을 빌자면 친일과 반일의 양자택일의 지점에 가로 놓인 셈이 된다. 류보선, 2005, 『민족#국가는 상황과 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 근대문화과 민족-국가 담론』 소명출판, 37쪽.

주'를 주고 받았고, 만주를 얻기 위해 전쟁을 불사했다. 이러한 만주 공간에 일제는 만주국을 수립(1932년)하여 '왕도낙토'와 '오족협화'의 이념을 내세워 대동아공영의 논리를 실험하고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다.<sup>8)</sup>

만주국 수립 이전의 만주는 근대적 민족-국가의 영역에 포괄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중국조차도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으로 동북3성을 포괄하지 못 했고, 이에 따라 만주는 대지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 군벌들의 휘하에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이 노골화되었고 만주 지역에서는 일본이라는 제국에 맞서 민족-국가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중국의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든 중국 민족의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했으나<sup>9)</sup> 결국 만주국의 수립으로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만주국의 성립과 소멸은 인위적인 근대화 과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서구에서처럼 절대왕정 체제로부터 근대적 국민국가로의 전환이 자발적인 시민의식의 형성과 더불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제의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국가의 성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우선 그러하다. 따라서 갑자기 찾아온 해방 이래 국민국가 형성에 난항을 겪었던 남한의 현대사가 만주국의 전례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차를 두고 반복된 역사는 국가를 형성할 국민을 의식적으로 '호명'하기 위해 다양한

8) 1930년대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담론 속에서 만주는 노쇠한 아시아의 이웃들을 서구문명의 길로 계몽해나갈 '젊은' 국가로 표상되었으며 '마르지 않는 보물단지', '개발을 기다리는 처녀지'로 묘사되었다. 만주식민화 기획은 이 신천지에 야마토족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종족적 사명감을 고취시켰고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은 신생의 근대적 도시에 대한 환상에 젖는 한편, 농본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개척의 사명에 고무되어 있었다. 김성경, 2004,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친일문학론과 국가주의』 『민족문학사연구』, 128쪽.

9) 동북3성을 지배한 장작립, 장학량 정권은 내적인 안정을 취하려 애쓰면서도 끊임없이 중국 전국구로의 진출을 도모하였다. 이들 또한 일본을 견제하면서 중화민족의 국가를 구성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호와 선전 선동을 통해 총동원 이데올로기를 조작해냈다. 또한 효과적인 국민 동원을 위해 근대적 위생 개념과 복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치안을 위한 경찰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만주국 내에서 조선인은 중국인 지주와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맺어야 했고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했다. 일본 국적을 지닌 ‘이등 국민’으로서 치외법권의 적용을 받기도 했지만 대다수 조선인들의 삶은 중국인보다 못한 하층민으로서의 지위를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의 이주 조선인은 수전개간의 공로를 통해 정착의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신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널우에 고인물에는 개고리가 여러마리 목욕을하고있었고 어떤놈은 짱  
충깡충 물없는 널판에서 뽀뽀기름하고있었다

자연의 한때의작난으로만드러진 운동장에서 세상모르고 목욕감고있는  
개고리-문득 찬수는이것이 매봉둔주머니들의 운명이 아닌가하고 생각하  
였으나 이내그것을 부정하고 말했다

해가나면 위선 물은 증발하여버릴것이겠고 그렇지않어도 학교교실로써  
울 널장우에 고여있는물이라 곳 목수와 미장이의 손으로 퍼냄을받거나 썰  
리움을 당할것이니 개고리 제아모리 즐거웁게 노닌다하여도 천생의 눈물  
이나 개울물에서와같은 안전을 얻을수는 만분없을일이요 물리우고 쪼깸  
받을 것은 시간문제로 되어있는 것이다<sup>10)</sup>

위 장면은 만주 이주 조선인의 불안정한 위치를, 잠깐의 소나기로 만들어  
진 웅덩이 속의 개구리에 비유하고 있다. 그 물은 금새 마를 것이고 웅덩이  
또한 언제 메워 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만주는 언제 어떤 세력에

10) 안수길, 「벼」; 허경진 외편, 2006, 『안수길』, 보고서.

의해 접해 질지 알 수 없는 ‘응덩이’이며 거기서 살아가는 조선인은 금새 마를 물 속에서 노니는 ‘개구리’라는 것이 재만조선인 작가의 대표적인 안수길의 현실 인식이다. 특히 1937년 치외법권이 철폐된 이후 만주의 조선인은 거의 무국적 상태에 가까운 대단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온 이주 조선인의 주권지향성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근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수길의 『벼』와 『북향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의 수전개간의 공로는 농경 기술의 선진성을 기반으로 타지에 정착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주었다. 이를 통해 조선인은 이민족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주 정세의 변화에 따라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유동적인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만주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권’이었다. 안수길의 『북향보』<sup>11)</sup>와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sup>12)</sup>은 만주 이주 조선인의 주권지향성을 이주민 공동체나 조선인 국가의 구상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족 국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하는 국가의 형태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약소한 것이었다. 조선인 이주민이 공동체를 구성해 살아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지향하게 된 주권 국가의 형태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합리성이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왕도 낙토’라는 만주국의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봉건적 윤리만을 당위적으로 강조하는 전근대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루이스 영은 ‘재발

11) 안수길, 『북향보』; (허경진 외편), 2006, 앞의 책(《만선일보》 1944. 12.~1945. 4. 7.)

12) 이기영, 『대지의 아들』; 1999 『(원본) 신문연재소설전집3』, 깊은샘, (《조선일보》 1939. 10. 12.-1940. 6. 1.)

명된 농본주의'라 했는데<sup>13)</sup> 농민문학론을 국책문학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농본주의가 변질되어 '재발명된 농본주의'가 되었다는 설명이다.<sup>14)</sup> 만주국은 후기로 갈수록 전시동원체제에 편입되어 중공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초기의 '왕도낙토'보다는 '오족협화'에 더 중심을 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도 국가의 구상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살펴볼 때, 조선인만의 부락을 형성하며 생활했던 이주 조선인들은 '오족협화'보다는 '왕도낙토'의 이념을 더 폭넓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는 '왕도낙토'를 실현하기 위한 농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근면 성실한 금욕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을 독려한다.

이처럼 작품에 나타난 양상이 매우 미약하긴 하지만, 만주 이주민 소설은 일본 제국 이외의 다른 어떠한 국가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시기에 조선인의 국가를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구성해야 했던 시기에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고 한민족은 일제에 동화됨으로써만 국민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자생적인 욕구에 의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상적이거나 그 형태를 소설로 재현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 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4) 원래 일본이 농본주의는 농촌과 도시가 대립되고 소작인과 지주가 대립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었다. 그 사상의 근저에는 자립적인 농촌 공동체를 지키려는 것이 종래의 농본주의 사상이었다. 그런데 만주국에서의 농본주의는 제국이라는 문맥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변모해서, 종래의 농본주의 사상의 전제가 되고 있었던 도시와 농촌의 대립, 소작인과 지주의 대립이라는 축을 상당히 애매하게 만들었다. —渡邊直紀(와타나베 나오키), 2008, 「장혁주의 장편소설 《개간》(1943)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15~16쪽.

#### 4. 초극적 공간 지향과 근대의 초극

1910년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1932년 만주에 만주국을 수립한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한다. 쉽게 끝나리라 예상했던 전쟁은 의외로 장기화되었고 조선과 만주 등지에서 물자 조달만으로 전쟁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일본은 인도차이나 등을 식민지화함으로써 부족한 물자를 충당하려 하였다. 이러한 남진 정책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불렀고 이에 반발한 일본은 1941년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기에 이른다. 1937년에서 1945년까지 이른바 ‘신체제기’, ‘전시체제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일본은 전쟁을 용인받기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두된 것이 ‘근대 초극론’이다.

그러나 ‘근대 초극론’ 또한 이데올로기로만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sup>15)</sup>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를 통한 근대화를 추구하고 근대국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던 일본에게 서구와의 전쟁을 통해 서구를 뛰어넘는, 즉 근대를 초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지적 전율’<sup>16)</sup>에 해당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일제의 근대초극론은 서양/동양의 대립구도를 비일본/일본으로 대체한 자기중심적이고 비약적인 논리였지만, 근대적 모순의 극복을 지향할 출구를 찾지 못했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근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논리였던

15) ‘근대의 초극’은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의 대표적 지성이 도달한 하나의 극점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를 단순한 전쟁 이데올로기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가라타니 고진, 『해설-근대의 초극에 대하여』; 히로마쓰 와타루, 김향 역, 2008, 『근대초극론』, 민음사, 241쪽.

16) 가와카미 테츠타로, 「<근대의 초극> 결어」; 노상래, 2007, 「한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하기」 『일본문화연구』22, 59쪽에서 재인용.

것이다. 특히 전환기의 부재의식에서 기인한 환멸의 내면 풍경에 빠져있거나 전통으로 회귀한 경우가 아니라 현실을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를 파악, 그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지식인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이들의 노력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날 ‘탈식민’의 가능성이 암담한 상황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깊이 일제의 논리를 수용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와중에도 일본의 것과는 다른 미세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의식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식민지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시기의 문학 전체를 ‘친일’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친일’임은 분명하지만 그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냈던 과정과 논리에 대한 분석이 그러한 윤리적 판정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남천은 근대초극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유하고자 했던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전환기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식하면서 더욱 치열하게 ‘리얼리즘’을 수행했고 이러한 모색을 하지 않는 동료 평론가들에 대해 ‘도피나 은둔’이라 규정짓기도 했다.<sup>17)</sup>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여야 할 위험성을 전환기를 치르고 부정에서 긍정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의 역사의 범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가만히 팔을 걷고 앉아 있어도 그러한 시대에 건너갈 수 있을 리라는 지극히 태평스러운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필연성은 실로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가능성을 높여서 필연성에까지 이르게 하는 자에게 한하여, 역사의 섭리는 먼저 피안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필연성을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불민하고 나태한 종족은 가능성을 필연성에

17) 노상래, 2007, 앞의 논문, 69쪽.

까지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역사에서 후퇴하여 영영 세계사에서 탈락해 버리는 운명을 지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전환기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은 스스로 솟아나려고 애쓰는 자에게만 구원을 준다고 한다<sup>18)</sup>

이러한 인식 하에서 그는 ‘자기고발-모랄론-도덕론-풍속론-장편소설개조론-관찰문학론’에 이르는 치열한 문학적 도정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는 리얼리즘을 통해 근대를 초극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현실의 세대 풍속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장편소설을 썼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여 시대의 모랄을 제시하고자 했다.<sup>19)</sup> 『사랑의 수족관』<sup>20)</sup>에서 그러한 인간형은 ‘김광호’라는 ‘현대청년’으로 표상되고 있으며 패션과 유행, 도시적 풍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현대’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랑의 수족관』은 이념이 사라진 시대의 주체의 몰락과 분열을 현대의 ‘모랄’을 통해 초극해보고자 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랄’이란 자신이 가진 기술을 성실히 수행하며 맡은 바 직업에 충실하려는 직분의 윤리이다. 『사랑의 수족관』에서 만주는 이러한 직분의 윤리가 수행되는 공간이다. 주인공 김광호는 모략에 의해 만주로 전출되지만 만주에서 그가 하는 일은 묵묵히 직분의 윤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김광호의 누명은 벗어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만주는 조선 내부의 논

18) 김남천, 「전환기와 작가-문단과 신체제」; 정호웅·손정수 편, 2000,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682~683쪽.

19) 김남천은 근대 초극의 논리를 문학에서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장편소설 개조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산문문학이 개조되어 갱생되는 길과 낡은 근대 인물이 극복되고 그것을 넘는 새로운 인간이 창조되는 길은 같은 몸에서 나온 두 개의 길인 셈이다. —노상래, 앞의 글, 74쪽.

20)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1999, 『(원본) 신문연재소설전집 3』, 깊은샘(《조선일보》 1939. 8. 1.~1940. 3. 3.)

리에 어긋나는 부분, 혹은 거기에서 소외된 부분들이 방출되는 공간이면서 윤리적으로 ‘갱생’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김광호의 연인인 이경희도 만주에서 자신이 수족관 안의 물고기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이러한 갱생은 체제 내적으로 환원되는 결과를 낳는다. 김광호와 이경희는 만주에서 내적인 인격의 성숙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결혼하고 대자본의 질서에 복속되는 것이었다. 정종현이 이를 “직분 윤리를 통한 제국 신민으로의 주체의 탈바꿈”으로 보았던 것처럼<sup>21)</sup> 김남천은 『사랑의 수족관』에서 자기분열의 초극을 이루기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근대 초극에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근대 초극이란 탈근대적 지향이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식민지 하의 그것이란 근대에서 탈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탈식민’이어야 한다. 1930-40년대에 보일 수 있는 탈근대적 지향이란 당연히 오늘날과 같은 의미일 수 없고 단지 근대적 모순에 대한 극복 정도의 의미일텐데, 김남천의 경우 리얼리즘이라는 문학적 방식을 통해 현실을 탐구하고 현대의 모탈을 발견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렇게 포착한 자본주의적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직분의 윤리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지향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서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초극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작품으로 한설야의 『대륙』<sup>22)</sup>을 들 수 있다. 『대륙』의 인물들은 만주의 자본주의적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민중 중심으로 전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인이나

21) 정종현, 2005, 『식민지 후반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5쪽.

22) 한설야, 『대륙』; 김재용외 편역, 2003,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大陸」, <<국민신보>> 1939. 6. 4.~9. 24.)

조선인을 만주의 ‘장자’로 여기는 민족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국제주의적 연대를 모색하려 한다. 이는 작가의 만주에 대한 이해가 이주자-내부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주자-내부의 시선이 반드시 작가의 체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설야는 당대 어느 작가보다 중국 체험이 승한 작가로 인정받아 왔다. 체험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전반에 중국이나 시베리아와 같은 대륙에 대한 지향이 편재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과 지향성이 만주의 민중에 주목하게 하였으며 만주에서의 국제주의적 연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효석의 경우에는 서구 중심의 문화에 맞설 수 있는 ‘동양의 미’에 대한 추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대초극론과의 연관성을 논의할 수 있다. 근대초극론이 서양의 대립항으로서 동양을 상정한다면 이효석은 스스로 서구적 문명인이 됨으로써 ‘동양의 미’를 찬미한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효석은 동양의 미가 지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벽공무한』<sup>23)</sup>의 서사는 식민지 조선의 경성과 유사-서구 하얼빈을 오가며 서양/동양으로 이분된 세계가 아니라 ‘비루한 현실(죽정 이)/이상적 환상’의 세계를 추체험하게 되고 이로써 동양과 서양을 넘는 보편적 인식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된다. 애초에 이효석의 지향은 서구적 근대였는데 이는 근대적 문명의 발상지에 대한 ‘향수’였다. 보편적 문명에 대한 ‘향수’는 조선문학이나 동양의 미를 세계적 보편성의 차원에서 사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하얼빈에서의 인물들이 단지 유사-서구인, 의사-문명인일 뿐 실제 문명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편성의 추구만으로 이효석의 문학이 보편적 세계문학의 차원으로 승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효석은 『벽

23) 이효석, 『벽공무한』; 2003, 『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집5』, 창미사(원제는 『창공(蒼空)』, (매일신보) 1940. 1. 25~7. 28.)

공무한』이나 「화분」과 같은 작품을 통해 조선 문학을 지방문학이 아닌 세계 문학적 보편성의 차원에서 바라볼 여지를 보여주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수행될 수 있을 만한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인이 경험한 근대성은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의 도입과 근대적 제도(학교, 공장, 금융기관 등)의 도입<sup>24)</sup>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자기 모순을 자각한 식민지 주체는 KAPF 등을 통해 그 모순을 극복하려 하였으나 이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일제말기에는 일제의 전쟁동원 논리인 ‘근대초극론’을 전유(appropriation)함으로써 근대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이는 일본 제국을 통해 세계사적 ‘보편자’가 되기를 상상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이효석은 ‘동양의 미’를 통해 서구와 대면(『벽공무한』)하였고 한설야는 국제주의적 연대를 통해 서구적 자본주의를 극복(『대륙』)하려 하였으며 김남천은 현대청년의 모랄(『사랑의 수족관』)을 통해 현실을 초극할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소설적 모색은 물론 작품마다 편차는 있지만, 일제의 ‘근대초극론’에 편승하면서도 ‘차이’를 통해 저항하고자 한 시도(비동일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만주는 식민지 내부의 모순을 초극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으로 재현되고 있으나 결국 근대적 모순을 넘어서는 탈근대적 지향의 실현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 했다.

## 5. 결론

한국 근대소설에 재현된 만주는 식민지의 외부이면서 조선의 연장인 ‘사

24) 임현진, 1996,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근대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97~198쪽.

건적 장소(site événementiel)'이며, 이주 조선인의 정주에의 욕망과 식민지 조선인의 근대 초극에의 열망을 시연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소설의 주체는 비주권적 존재이면서 주권을 지향하는, 비초극적 식민지인인면서 초극을 지향하는 분열된 정체성으로 인해 갱생되고자 하며 만주는 그러한 갱생의 공간, 새로운 주체성 정립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인이 만주에서 품었던 욕망은 식민지의 내부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주한 조선인은 만주에서 정주하기를 욕망하며 조선 내부에서는 꿈꿀 수 없는 조선인만의 국가를 구상하였고, 만주를 통해 초극의 가능성을 엿본 식민지 지식인들은 그들 나름의 전망을 시연(試演)해보고자 하였다.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하는 그들의 운동은 일제의 지배담론에 편승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비동일화<sup>25)</sup>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근대적 국가의 구성은 제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룸으로써 근대성의 기반이 결여된 탈근대적 지향으로 나아갔고 일제말기 문학은 '친일'이라는 오명을 남기에 되었다.

투고일: 2009년 9월 7일, 심사개시일: 2009년 10월 3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1일

25) 미셸 페치는 주체 구성의 방식을 동일화(Identification), 반동일화(Counter-Identification), 비동일화(Disidentification)로 설명한다. — Ashcroft, B. etc., 이석호 역, 1999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274~276쪽, McDonnell D., 임상훈 역, 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62쪽.

參考文獻

● 기초자료

- 김남천, 2000, 「전환기와 작가문단과 신체제」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김남천, 1999, 「사랑의 수족관」(『원본』신문연재소설전집3), 깊은샘 ; 『조선일보』  
 (1939. 8. 1.~1940. 3. 3)  
 안수길, 2006, 「벼」 『안수길』(허경진 외편), 보고서, 2006  
 안수길, 2006, 「북향보」 위의 책, 2006.(『만선일보』1944. 12.~1945. 4. 7.)  
 이기영, 1999, 「대지의 아들」 『(원본) 신문연재소설전집3』, 깊은샘 ; 『조선일보』(1939.  
 10. 12~1940. 6. 1)  
 이효석, 2003, 『벽공무한』(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집5), 창미사 ; 「창공(蒼空) 『매일  
 신보』(1940. 1. 25~7. 28)  
 최서해, 1987, 「탈출기」 『최서해전집 上』, 문학과지성사  
 한설야, 1989, 「과도기」 『과도기한설야 단편선집1』, 태학사  
 한설야, 1989, 「그릇된 동경」 『과도기한설야 단편선집1』, 태학사  
 한설야, 2003, 「대륙」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 「大陸」 『국민신보』(1939.  
 6. 4.~9. 24)  
 함대훈, 1939. 7, 「남북만주편담기」 『조광』

● 논문 및 이론편

- 김성경, 2004,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친일문학론과 국가주의」 『민족문화사연구』  
 노상래, 2007, 「한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초극하기」 『일본문화연구』 22  
 류보선, 2005, 「민족≠국가라는 상황과 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무)의식」 『한국 근  
 대문학과 민족국가 담론』, 소명출판  
 윤대석, 2006,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임현진, 1996,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근대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  
 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정중현, 2005, 「식민지 후반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Ashcroft, B. etc., 이석호 역, 1996, 『포스트콜로니얼문학이론』, 민음사  
 Mcdonnell D., 임상훈 역, 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Badiou, A., 이종영 역, 1995, 『철학을 위한 선언』, 백의, 1995

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柄谷善男(가라타니 고진), 2008, 「해설-근대의 초극에 대하여」 『근대초극론』, 민음사  
渡邊直紀(와타나베 나오키), 2008, 「장혁주의 장편소설 『개간』(1943)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 Abstract ■

## A meaning of Manju presented in Korean modern novels

Manju, which represented in Korean modern novels, is 'site événementiel', the outside of a colony and extension of Joseon, and has a meaning a space having possibility that can demonstrates the desire of immigrating Koreans to settle and of colonial Koreans to overcome modernism. The subject of the novels is to be revived by the separated identity, which is an existence having no sovereignty and aiming at sovereignty and which is subjugated colonial people and aiming at conquest, and Manju is represented a space of such revival where new subjectivity is established.

www.kci.go.kr

Key words: Manju, the outside of a colony, site événementiel, Overcoming modernism, revival